



## 핵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

### 핵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란 무엇인가?

방사성물질이나 핵물질 폭발시 핵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다. 이러한 폭발로 인해 눈부신 불빛, 열, 화재 및 위험한 방사선이 발생할 수 있다.

방사선 비상사태에는 원전 사고도 포함될 수 있다. 그 것은 또한, “더러운 폭탄”에 의한 폭발이 될 수도 있다. “더러운 폭탄”이란 다이내마이트 같은 폭발물로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.

### 핵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법은?

주정부 및 지방 당국은 방사선량의 모니터 결과에 따라 대처방법을 결정하게 된다. 그러므로, 라디오, 텔레비전 또는 비상경보시스템을 경청하며 지시에 따른다. 필요하다면, 배터리-전원 라디오를 갖춘다. 집에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그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말해줄 것이다. 집안에 머무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:

-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자물쇠로 잠근다.
- 모든 환기 시스템을 끈다. 이 환기 시스템에는 난로, 에어컨, 통풍구 및 선풍기가 포함된다.
- 이어, 창문이 없는 내실에 머문다. 그리고 내실 안에 가족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.

### 핵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로 인한 신체적 이상은?:

더러운 폭탄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만큼의 방사선은 심중 팔구 들어있지 않다. 이 폭탄의 주된 위험은 바로 폭발에 있다. 대규모 핵 폭발의 경우, 신체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. 실제로 어떤 징후가 발현되기까지는 몇시간 혹은 며칠이 걸릴 수 있다.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, 겨우 한두가지 증상만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.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:

- 피부 발적
- 구역 또는 구토
- 두통
- 심한 피로감
- 설사
- 구강염 또는 잇몸출혈

신체적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치의에게 전화한다.

### 핵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후 대처방법은?

폭발 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, 건물 안으로 들어가 라디오, 텔레비전 또는 비상경보시스템을 경청하며 지시에 따른다. 폭발현장 가까이에 있었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:

-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. 건물안에 머무르면 방사성물질에 대한 노출이 감소될 것이다.
- 이어, 가능한한 빨리 옷과 신발을 벗어 플라스틱 백에 담는다. 그리고는 백을 밀봉한다.
- 그런 다음, 물과 비누로 최대한 꼼꼼하게 피부를 닦아내거나 샤워를 한다.
-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.

---

**Ready in 3** (“레디 인 쓰리” - 3 단계 대비)은 미주리주(州)의 비상대책프로그램이다. 특히, 본 프로그램은 미주리주 보건 및 고령자 복지부(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and Senior Services) 에서 후원하고 있다. **Ready in 3** 의 목적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토네이도부터 테러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. 참고로, [health.mo.gov/emergencies/readyin3](http://health.mo.gov/emergencies/readyin3) 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